

# 쇼핑몰 등 실패 거름삼아... 초간단 결제로 올 취급액 200억

## 난 멈추지 않는다

### ‘페이업’ 설립자 문 병래

‘눈물 젖은 빵’으로 설명하기 힘든 좌절이 있다. 남과 다른 선택과 주위의 시선에는 늘 외로움이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난 멈추지 않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도전에서 희망과 위로를 느끼다 보면, 어느새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편집자 주)

# 인터넷 카페에 ‘무통장 입금 안내’를 적던 사장 A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제품 구매 신청을 했던 소비자들이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편의상 마련한 예금주 이름과 본인 이름이 달라 의심을 사기도 해서다. 그러다 신용카드 O2O(Online to Offline) 결제 업체 ‘페이업(Payup)’과 계약한 뒤로 매출액이 경종 뛰었다. 무통장 입금 시절의 ‘구매 이탈률’도 대폭 줄었다. 페이업의 카드 결제 링크 덕분이다.

“벤처 세대의 쓰디쓴 경험이 지금의 ‘상승세’를 만들어줬죠.”

단국대 무역학과 96학번인 문병래(41) 페이업 사업가는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1999년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다.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던 3학년 때였다.

“당시에는 잘 나갔죠. 산업자원부 장관 상도 받고, 주요 인사들이 투자자로 나서기도 했으니까요.”

처음 4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14명 규모로 커졌지만, ‘벤처 거품’과 함께 가라앉았다. 더이상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결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소 교수(사진 왼쪽)와 문병래 페이업 사업가. /페이업

### 액티브X 없는 간편한 결제 제공 소비자의 ‘구매 이탈률’ 줄여 매출 ↑

국 한국신용카드결제에서 직장인 생활을 시작하며 오프라인 결제 업무를 배웠다.

이른바 ‘모바일 백뱅’을 터뜨린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올 무렵인 2009년에는 신용 시장에 눈을 떠 온라인 결제 회사로 이직했다. 이후 수공업품 유통을 위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나이가 아니면 평생 사업을 못 할 것이라 보고 봤어요. 잘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에게 노하우로 남게 됐죠.”

#### ◆결제시장의 빈틈을 노렸다

문 이사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잘 하는 일을 먼저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방 사장들이 알려준 ‘결제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2016년 페이업이 문을 연 배경이다.

그런데 회사를 세운 사람이 어째서 대

표가 아닌 ‘사업이사’일까. 대표이사는 지앤비교육 출신인 아내 최진선 대표가 맡았다. 최 대표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 해외 영업에 도움 되는데다, 정부가 여성 CEO 지원 정책을 펴는 점도 고려했다.

페이업의 목적 또한 ‘실속’을 따른다. ‘소비자는 편하게 사고, 판매자는 돈 잘 버는 서비스.’ 문 이사는 “판매자는 간편히 카드결제 하고, 소비자는 액티브 X 없이 물건을 사니 무통장 입금 시절의 ‘구매 이탈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페이업은 400여 제휴사에 ▲신용카드 수기결제(판매자가 카드 정보 입력해 결제) ▲SMS결제(구매자가 카드정보 입력) ▲URL(파일 식별자) 링크결제(문자 속 링크 눌러 구입 화면으로 이동)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기결제는 판매자가 페이업의 상점 관리자 누리집에 로그인 한 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펜션이나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에서 주로 쓰인다.

SMS결제는 판매자가 결제 요청 문자를 보내면, 구매자가 문자 속 링크로 직접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다. 학원과 공부방, 각종 협회와 행사 기획사가 활용한다. 개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제가 문자 보낼테니, 그 안에 정보를 넣어 결제하시라’고 안내하면 된다.

#### ◆‘미니홈피’ 같은 무료 쇼핑몰 제공 ‘매출 경종’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URL 링크결제’다. 판매자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페이업이 만든 결제요청 주소를 넣는다. 구매자가 해당 링크를 누르면 상품 정보가 담긴 결제창이 뜬다.

이 방식은 페이업이 각 제휴사에 무료 제공한 쇼핑몰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업체 대표가 페이업이 마련한 기본 주소에 자신의 아이디를 붙이면, 해당 쇼핑몰 화면이 나온다. 회원마다 자신만의 누리집을 가질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같은 개념이다.

판매자가 제품 설명과 함께 사진, 동영상 등을 넣고 전체적인 색감도 바꿀 수 있다. 누리집 화면 상단에는 업체 로고를 넣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초기 가입비 20만원에 결제 수수료 3.3%(부가세 별도), 보증보험 2만5420원(200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8~12%에 이르는 대형 플랫폼에 판매자 등록 하기보다는, 소셜 미디어와 자체 쇼핑몰에 결제 주소 넣는 편이 훨씬 낫지요.”

판매자를 위한 틈새시장의 성과는 무엇일까. 문 이사는 “우리가 사장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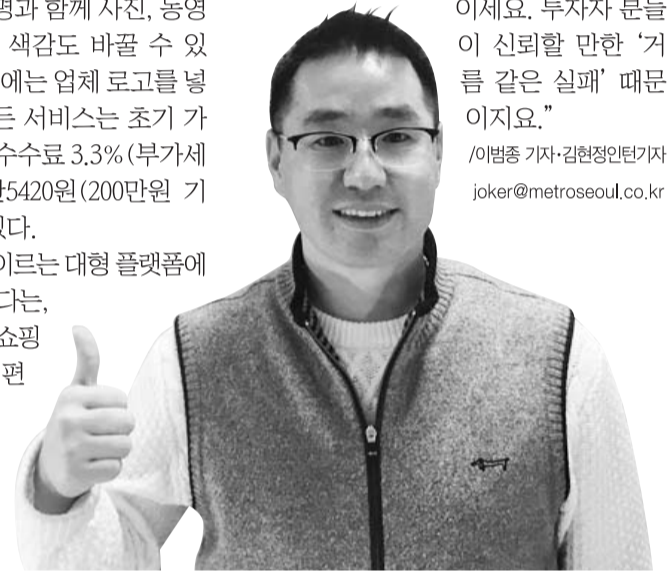
께 결제 주소 하나 제공했을 뿐인데 매출이 평균 30% 이상 올랐다. 그야말로 사장님들의 페이(Pay)가 업(Up)된 셈”이라며 웃었다.

결제 시장의 난제는 보안이다. 페이업은 이달부터 블록체인(분산장부 체계)을 통한 보안 강화에 들어간다. “2016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권위자인 박수용 교수님을 만나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결제·상점·고객 정보가 중앙 서버에 저장돼 위변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덕분에 모두 안전해졌습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페이업은 특히 2개와 기술 이전 1개,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1개, 매출 4억원 등 신규 업체로는 쌓기 힘든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베트남 시장 진출과 은행 취급액 200억원을 노린다.

“처음에는 좋은 실적을 의심하던 분들도, 저의 경험담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투자자 분들이 신뢰할 만한 ‘거름 같은 실패’ 때문이지요.”

/이범중 기자·김현정인턴기자  
joker@metroseoul.co.kr



## 자진폐교 대구미래대, 학생·교직원 어디로

학생 총원 어려움 겪어 폐교 재적생 264명 특별 편입학 교직원 70여명 실직 불가피



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가 자진 폐교를 신청한 이유는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돼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구미래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기준 34.8%에 불과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돼 오다 지난해 6월 2일 교육부에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264명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타 대학 유사 학과나 전공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고, 학적부 관리와 기 졸업생

의 증명서 발급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70여 명의 교직원들은 구제 대책이 없어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래대 소속 교직원들은 자진 폐교 결정에 대해 학교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애광학원의 재산과 경영권이 존속되는 반면, 교직원들의 생존 대책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설립자가 같은 대구대 영광학원의 고용 승계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교육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미래대 폐지에 따라 장과유치원만 운영하게 되는 애광학원의 관할청이 기존 교육부에서 경북교육청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

## 겨울방학 석면제거 학교 1240곳 점검

석면 잔재물 피해 우려로 특별 점검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초·중·고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비산 등 관리소홀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실시되는 전국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 공사가 이뤄지는 학교 건물은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333개교로 가장 많고,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대구 각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등 전국 1240개 학교에서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석면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2000㎡ 초과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 이상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각 교육청이 각각 점검한다. 법적으로 감리인이 없어도 되는 800㎡ 미만 작업장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공사 기간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 〈2018년 서울시 초·중학교 규모별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구간	급식인원수(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2018 단가	2017 단가	증가	2018 단가	2017 단가	증가	
1	~300	3,775	3,605	170	5,632	5,300	332	
2	301~500	3,480	3,365	115	5,305	5,030	275	
3	501~800	3,377	3,255	122	4,993	4,730	263	표준단가
4	801~1,100	3,385	3,250	135	4,868	4,615	253	
5	1,101~	3,347	3,215	132	4,768	4,515	253	

/서울시교육청

## 서울 무상급식 질 높인다... 예산 191억 ↑

무상급식비 예산 총 3083억 편성 소규모 학교 급식 여건 개선될 듯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점심식사 단가가 인상된다. 급식인원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상폭을 더 높여 현실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년보다 191억 원 증액해 총 3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 질 향상과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을 마련해 학생 수에 따라 5 구간으로 나눠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급식과 비교해 소규모 급식의 경우 식재료 발주 등의 비용이 더 들어 상대적으로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00명 이하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전년보다 170원 증가한 3775원, 같은 규모의 중학교는 전년보다 332원 증가한 5632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 지원 단가는 식사량이 크고, 급식비에 인건비가 모두 포함돼 급식비 중 일부를 별도 지원 받는 초등학교 급식지원 단가보다 높아 차이가 발생한다.

무상급식 표준단가인 500명 초과 800명 이하 규모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가 3255원, 중학교는 4993원으로 책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예산구조가 복잡해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해 교부하고 분리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학교와 학생 간 급식의 질 차이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규모 학교도 공감하는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